

# 우리 삶이 역사... 인생이야기 생생하게 전달



지난 삶을 구술하는 이복님 할머니. <곡성군 제공>

## 곡성군 동네 어르신 22명 구술서 발간 마을 어르신 구술 프로젝트 진행 노인복지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곡성군은 80년 넘게 살아오신 지역 어르신들 가운데 읍면별로 2명씩을 선정, 인생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구술 채록한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사진)'를 발간했다.

군은 단순한 삶의 기록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과 일상의 삶, 각기 다른 문화적 가치, 마을의 역사 등을 체계화해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노인 구술 프로젝트를 4번째 이어가고 있다.

그 사업의 성과가 올해도 나왔다. 군은 올해로 4번째 책을 발간했다.

오곡면의 김남수(83) 할아버지는 "해방이 된지는 몰랐지만, 일본 놈들이 무서운지는 알았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모락모락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면 일본인들이 주걱을 들고 나타나 커다란 보리밥을 짓는 솜을 휘휘 저어 뿔뿔이 찢어내며 썰었다고 빼앗아가는 시대를 김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버티고 견디며 보냈다.

6·25 전쟁 때에는 형님을 잃었고, 마흔이 다 되어서는 30만원 월급을 벌러 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



일하며 아내와 4남매의 가정을 꾸렸다.

직업군인이던 아들이 다쳐 식물인간이 돼 1년간 누워있을 때 아들의 손을 붙잡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들만 살았으면 원도 없겠다"고 기도를 올린 순간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울지 못했다"는 할아버지는 인생에 도움을 준 인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파란만장한 한 평범한 개인의 전기를 입으로 써 내려갔다.

이 밖에 도장회를 결성한 오곡면의 류근창 할아버지, 어린 나이에 시집과 노년에는 효도의 집 건립 부지를 희사한 이복님 할머니, 평생 농사만 지었지만 '내가 하는 말이 약'이라는 자부심 속에 사는 목사동면의 신한성 할아버지 등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 책에는 22명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됐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공군 1전비, 경로당 5곳에 마스크 3300장 기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이 최근 지역 경로당 5곳을 찾아 마스크 3300장을 기부했다.

광주승정역과 주식회사 와이젯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1전비의 방역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전비에 마스크 3000장을 전달했다.

1전비는 KF-94 마스크 1100장, KF-80 마스크 1100장, 비말마스크 1100장을 동국

동 경로당, 덕흥마을 복지회관, 유촌마을 복지회관, 본촌 노인복지회관, 첨단 노인복지회관에 나눠 전달했다.

1전비는 지난 2월부터 총 98회 광주승정역 방역지원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광주승정역, 주식회사 와이젯이 최근 장병을 위한 마스크 3000장을 1전비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교대 부설초, 교복 바자회 판매금과 배추 250포기 기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교장 최영순)가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식)에 "변화를 만드는 기본종은 GIVE 성금" 50만원과 배추 250포기를 전달했다.

성금과 기부품들은 초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기부한 교복을 바자회를 열고 판매해 마련했다. 배추는 광주적십자사로부터

김장김치로 담가 우리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흥정 광주교대부설초 학부모회 회장은 "아이들이 함께한 바자회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금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꼭 필요한 수혜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산소방서 구조대 이상종 팀장, 영웅소방관 선정

3년 간 현장 3600곳서 424명 구조  
쉬는날은 헌혈·봉사활동 등 나눔 실천

광주 광산소방서 구조대 이상종 팀장이 최근 '2020년 영웅소방관'에 선정됐다.

영웅소방관은 전국 소방공무원 중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활약을 한 소방관 8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팀장은 지난 1993년 소방관으로 입관해 급급·구조·화재진압대원을 두루 거쳤다. 최근 3년 동안 지난 현장 3600여곳을 찾아 524명을 구조했다.



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 기부, 안전을 위해 몸을 던진 순직 소방관들을 위해 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비밀일 때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헌혈을 꾸준히 하기도 했다.

이 팀장은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상금은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 기부, 안전을 위해 몸을 던진 순직 소방관들을 위해 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학연금·전력거래소 업무협약 대체에너지 공동 연구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사진)은 전력거래소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 이사장과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나주 사학연금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사학연금 자금운용 전문성 공유, 대체에너지 공동 연구 등이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6년생 망설이지 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60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2년생 초심으로 일관한다면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84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피는 안목이 절실하다. 96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므로 이리라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자. 행운의 숫자 : 46, 53

37년생 당면한 문제 해결이 급하므로 부차적인 일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49년생 모아서 처리함이 훨씬 나은 것이다. 61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73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85년생 원하는 바와는 달리 타의 영향을 받아 변경 될 것이다. 97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92

38년생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속단하지 말고 이면의 가치를 읽을 줄 알아. 50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2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74년생 관점을 달리해 보자. 86년생 화근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단속이 절실하다. 98년생 방해자나 가벼운 장애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6, 50

39년생 순조롭게 진행되는 성구이다. 51년생 의연한 자세로 임함이 백 번 나은 것이다. 63년생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75년생 본래의 의지대로 행해 후회하지 않으리라. 87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어느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갖게 되리라. 99년생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7, 55

40년생 금권에 휘둘러지면 번민에 휩싸일 수도 있다. 52년생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면 분명히 극복 되리라. 64년생 암시를 놓인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76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88년생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00년생 정밀함과 구체성은 대국을 이루는 요체로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 48, 72

41년생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3년생 절만 활용한다면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65년생 중간 점검이 성과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77년생 오류를 찾아내서 잘 대처한다면 순행할 수 있겠다. 89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자. 01년생 기본적인 조건을 안정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2, 73

##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습터	00 바람피면 죽는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15 생방송 연속복권 720+ 20 MBC 다크프라이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맛남의 광장(재)
[1]	00 TV쇼 진품명품(재)		10 백파더 요린이 레시피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3]	00 팍 잡아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재)	00 특목 보합설계(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또봇V 2 15 캐치! 티니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생활의 달인(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펫 비타민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바람피면 죽는다	20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크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KBS 드라마 스페셜 2020 <연애의 흔적>	40 UHD특집 다크멘터리 건축의 시간	35 어쩌다 마주친 그 개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글로벌 파워 뮤지션발굴 프로젝트 ASIAN TOPBAND	
[12]	10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영화 얼라이드	15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다큐 KBS 대기화 23.5(재)	40 콘텐트 박물관 스페셜 추적 몬스터	05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35 나이트라인

##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 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티! 토니 하니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아바타-아양의 전설
07:15 로보가 폴리	12:25 넥스트 히어로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45 다큐 잇
0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3:00 명의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마법버스 타요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겨울왕국 어드벤처
08:45 워든지 무적박스	15:45 레전드 루비	-겨울 산수화 속으로, 중국
09:00 꼬미와 베베	16:00 방귀대장 뽀뽀(재)	21:30 한국기행
09:15 토끼개 가족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나나랜드로 오세요 4부
09:30 물방	16:30 당동맹 유치원(재)	이웃만이 내 세상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 해오	21:50 파란만장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2:45 한국에 산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형사 가제트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7일(음 11월 3일 甲午)

<b>子</b>	36년생 망설이지 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60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2년생 초심으로 일관한다면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84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피는 안목이 절실하다. 96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므로 이리라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자. 행운의 숫자 : 46, 53	<b>午</b>	42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54년생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국한하는 것이 순탄하다. 66년생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78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이익이 따를 것이니 행함이 이로우리라. 90년생 아나디 싶으면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이 옳다. 02년생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해야만 성공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3, 90
<b>丑</b>	37년생 당면한 문제 해결이 급하므로 부차적인 일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49년생 모아서 처리함이 훨씬 나은 것이다. 61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73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85년생 원하는 바와는 달리 타의 영향을 받아 변경 될 것이다. 97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92	<b>未</b>	31년생 가장 왕성한 불길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43년생 지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만을 야기할 수 있다. 55년생 원칙적으로 대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정확해야만 한다. 67년생 학습구대 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79년생 받치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91년생 힘든 고비가 남아 있다. 행운의 숫자 : 16, 58
<b>寅</b>	38년생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속단하지 말고 이면의 가치를 읽을 줄 알아. 50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2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74년생 관점을 달리해 보자. 86년생 화근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단속이 절실하다. 98년생 방해자나 가벼운 장애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6, 50	<b>申</b>	32년생 김포양은 허술해도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44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56년생 속단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80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92년생 학습구대 해왔던 바가 성사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8, 78
<b>卯</b>	39년생 순조롭게 진행되는 성구이다. 51년생 의연한 자세로 임함이 백 번 나은 것이다. 63년생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75년생 본래의 의지대로 행해 후회하지 않으리라. 87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어느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갖게 되리라. 99년생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7, 55	<b>酉</b>	33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45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효과적이다. 57년생 힘들더라도 차츰 전망이 밝아질 것이니 앞날의 가능성을 보고 일하라. 69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어라. 81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 한다. 93년생 보류해 왔던 일을 다시 행해도 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02, 77
<b>辰</b>	40년생 금권에 휘둘러지면 번민에 휩싸일 수도 있다. 52년생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면 분명히 극복 되리라. 64년생 암시를 놓인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76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88년생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00년생 정밀함과 구체성은 대국을 이루는 요체로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 48, 72	<b>戌</b>	34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46년생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58년생 당장 마음에 끌린다고 하여서 즉시 실행하지 말고 뒷감까지 염두에 두고 일하라. 70년생 유사하지만 전혀 다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94년생 정 단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34, 89
<b>巳</b>	41년생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3년생 절만 활용한다면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65년생 중간 점검이 성과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77년생 오류를 찾아내서 잘 대처한다면 순행할 수 있겠다. 89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자. 01년생 기본적인 조건을 안정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2, 73	<b>亥</b>	35년생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서 반복되리라. 47년생 대체 해 나아가는 방식과 기교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59년생 도를 넘으면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71년생 일일이 확인하는 습관이 유익하다. 83년생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95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행운의 숫자 : 23, 61